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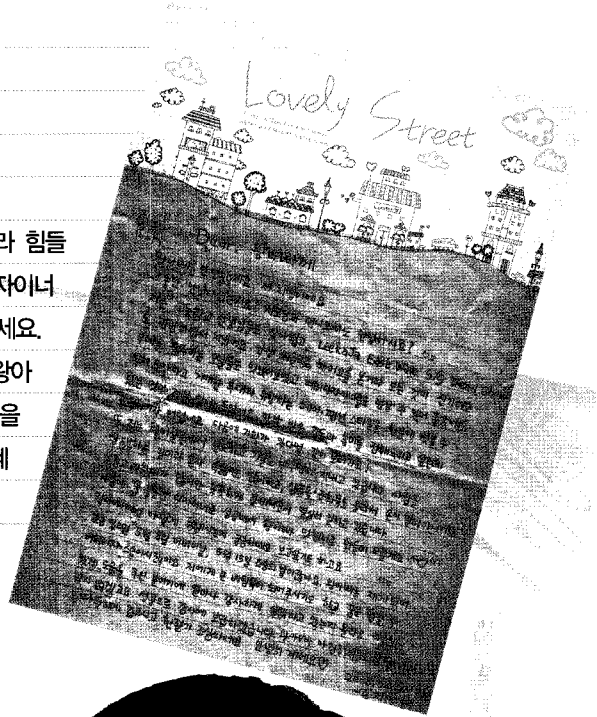
Dear 왕아빠께

왕아빠, 안녕하세요. 사모님과 언니 오빠도 안녕하시죠?

중략 . . .

저는 헤어 살롱에서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힘들고 자칫 때가 많지만 곳곳하게 버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디자이너로 성공해서 왕아빠 멋쟁이로 만들어 드릴게요. 왕아빠께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보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5월 8일 아버지 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왕아빠는 제게 있어 어버이이자 스승이시잖아요.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은혜 잊지 않겠고요. 성공으로 감사에 보답하겠습니다. 왕아빠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니가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환절기 조심하세요.

김지영 올림



딸 혼사 축의금 전액
국제구호단체에 전달
안태복 디앤비애드 사장



이 편지의 수신인 왕아빠는 (주)디앤비애드의 안태복 사장이다. 안 사장을 왕아빠로 부르는 사람은 지영 양뿐이 아니다. 졸업아 수십 명에 이른다. 1997년부터 소녀가장 4~5명씩에게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매달 10만원 씩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거노인을 포함하면 안 사장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안 사장은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몽골, 방글라데시 등의 어린이 5명에게도 매달 2만원 씩 송금한다.

이처럼 소리 소문없이 큰 사랑을 실천해 왔던 안 사장이 최근 또 큰일을 냈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알려진 안 사장의 봉사와 기부활동은 그야말로 대형사건(?)이다.

딸 혼사 축의금 5210만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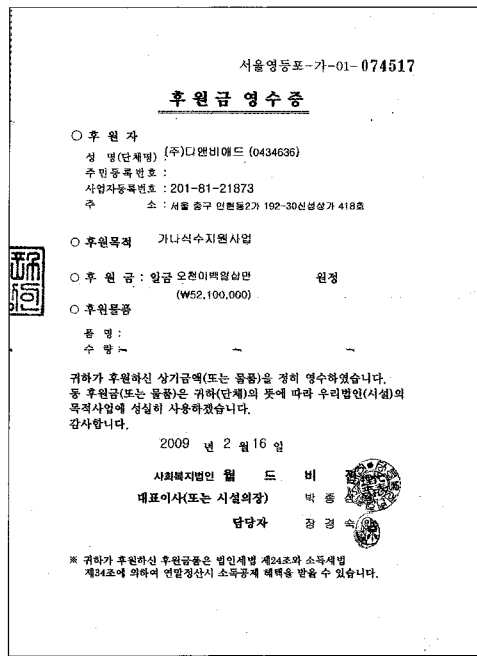
안 사장은 지난 2월 딸 세희 양의 혼사를 치렀다. 그런데 이날 예식장 접수창구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가족친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들이 축의금을 접수받고 있었기 때문. 그분들은 다름 아닌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직원들이었다. 축의금은 모두 5210만원. 결혼식이 끝나자 월드비전 직원들은 축의금 전액을 자신들이 가져온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로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왔다.

안 사장은 딸의 혼사를 앞두고 월드비전에 연락을 했다. “딸의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 전액을 아프리카 오지의 우물을 파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 만약 축의금이 5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보태겠다. 축의금 접수를 월드비전에서 직접 해 달라.”

안 사장은 늘 마음 한편에 아프리카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길이 없는가를 고민했다. 그러던 차에 딸의 혼사 날이 잡혔다. 가족회의를 소집한 안 사장은 축의금을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의 오지 우물 파는 비용으로 보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결론은 간단했다. 부인 변명숙 씨, 아들 준모 군, 딸 세희 양 모두 그 자리에서 OK사인을 냈다.

“사실 축의금은 딸의 모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아프가니스탄, 잠비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물을 먹고 중병에 걸리거나, 먼 데 가서 물을 길어오다 도중에 성폭행을 당하는 소녀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픈 현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그들의 우물을 파는데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사장이 이번에 보낸 5210만 원은 아프리카 가나 크라치웨스트 지역에 우물 13개를 뚫는 데 쓰일 예정이다. 10만 명 이상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고 올해 안으로 모두 완공예정이다. 안 사장은 우물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도 잘해야 하기에 매달 관리비로 50만 원씩을 보낼 생각이란다.



“사실 축의금은 딸의 모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픈 현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그들의 우물을 파는데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우이웃에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왼쪽 끝이 안태복 사장)

가족 모두 봉사하는데 한마음

축의금을 기부하는데 가족 모두 쉽게 동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 사장의 집은 오래 전부터 항상 손님들로 북적인다. 자녀들의 친구들이 수시로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때문. 친구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할 때는 안 사장이 슬그머니 대준 경우도 여러 명이다. 또 안 사장이 후원한 소년가장들을 방학 때면 20여 명씩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동대문의 류시장을 찾아 쇼핑을 시켜준다. 한 사람당 10만원씩을 주고 스스로 쇼핑을 하게 했다. 또 설악산 등의 관광과 놀이공원도 간다. 이들의 안내는 부인과 자녀들이 늘 담당했다. 방학 때면 이런 행사 아닌 행사가 일상처럼 되어 버렸다. 이런 연유로 가족 모두 봉사와 사랑을 터득하게 되었고, 축의금 전액을 기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을 안 사장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기자가 추정해 볼 때 족히 수억 원은 넘을 듯하다. “사실 돈은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액을 적어 놓거나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봉사와 기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야 해요. 즉흥적으로 하다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이온스와의 인연으로 봉사 시작

안 사장이 봉사와 기부를 시작하게 된 건 1993년. 라이온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부터다. 라이온스에 참여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가슴으로 안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불우청소년 돕기에 적극 나섰다. 연산라이온스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연산라이온스는 불우청소년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 단체로 유명하다.

라이온스라는 단체를 통해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던 안 사장은 1997년 IMF 이후 개인 후원을 병행했다. “우리 회사도 그때 어려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 불우한 환경의 사람은 더욱 힘들어진다. 내가 정말로 봉사정신을 가졌다면 지금이 기부를 늘려야 할 때다.” 그 이후로 안 사장은 개인 후원과 해외의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지금까지 기부를 하고 있다.

요즘 국내외의 금융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의금 전액을 기부하는데 망설임이 없었



나는 질문에 안 사장의 답변은 이랬다.

“오래전에 어느 강연회를 갔었는데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야 한다. 나이 먹으면 입은 될 수 있는 대로 열지 말고 지갑은 열어라. 그리고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 가슴깊이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안 사장이 그동안 후원한 사람은 1백여 명. 그들이 보내 온 편지가 사무실 한쪽에 수북하다. 모두 기억이 새롭지만 그중 한 소녀가장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시골에 사는 김선아 양으로 아버지는 중풍,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고 김 양이 3남매 중 장녀였다. 학교는커녕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인 김 양을 중학생 때 만나 꾸준한 후원과 보살핌으로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가끔 안부 편지를 보내올 땐 오히려 내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사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인쇄인들 중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창산 세일사 사장님, 이재복 성신문화사 사장님, 김진해 두산원색 사장님, 주백 완유인쇄사 사장님, 이정학 해외문화 사장님, 김규만 크리홍보 사장님, 김용태 삼양프로세스 사장님, 이동인 (주)신성도탈시스템 사장님 등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진정한 봉사와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30년간 인쇄 외길 걸어

안 사장은 인쇄업을 하면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 모두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006년 장한어버이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상을 받고자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닌데 상을 받고 보니 봉사의 참뜻인 ‘섬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안 사장이 인쇄와 인연을 맺은 건 1979년. 30여 년 간 인쇄업을 해온 외길 인쇄인이다. 인쇄업계에 입문하기 전 연직회사에 잠시 다녔는데 그곳에서 인쇄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인쇄사를 창업했다고 한다. 인쇄업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하자 “인쇄인으로서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인쇄업을 천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아닙니까.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

인터뷰 유태준 국장·사진 박성권 기자

“인쇄인으로서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인쇄업을 천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아닙니까.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